

버냉키 전 의장은 "지금까지의 수출 제조업만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고 한국 경제도 다각화하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렵다"며 "경제구조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고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 꼭 필요하다"고 강조했다. 오후에 강연자로 나선 제임스 리카즈 '커런시 워' 저자는 "'환율 전쟁'은 경제 선진국들이 1985년의 '플라자 합의'와 같은 협정을 맺지 않는 한 무한대로 지속될 것"이라며 "한국이 구조개혁을 통해 실질 성장을 이끌어내는 게 최선의 대응책"이라고 조언했다. 가와이 마사히로(河合正弘) 일본 도쿄대 교수는 "한국도 일본처럼 통화·재정정책 및 구조개혁을 포함한 '미니 아베노믹스'를 도입해봐야 한다"고 제안했다.

포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, 진웅섭 금융감독원장, 윤종규 KB금융 회장,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,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, 이광구 우리은행장, 김주하 NH농협은행장,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등 금융계 및 경제학계 인사 450여 명이 참석했다.

유재동 jarrett@donga.com·장윤정 기자

동아일보 2015년 5월 28일